



정상 운영하지만… 곳곳 빈 매대·고용 불안

홈플러스 서귀포점 ‘정상 영업’ 속 현장엔 적막 가득
단골들도 한숨… 노조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

“보시다시피…”

8일 오전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지난 3일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 이후 분위기를 묻자 직원들은 비어있는 매대를 가리키며 말을 아꼈다.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이 정문에 붙어 있었지만 매장은 곳곳에 비어 있는 진열대와 한산한 느낌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폐점 매장 목록에서 제외돼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일부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퇴사자가 나오는 등 다른 지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다.

매장 곳곳에 비어있는 매대가 이를 보여줬다. 5~6단으로 된 우유·음료·수산·가공품·주류 등 매대가 일부 비어있거나 다른 제품으로 공간이 채워져 있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일부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손님이 적다 보니 무인 계산대는 꺼진 채 막혀 있었고, 직원 2~3명만이 유인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1층에 입점한 업체들 가운데 이미 자리를 비운 곳도 2~3곳 정도 보였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던 단골들도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강 모씨는 “제주에서 유일한 게 있는 홈플러스인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40대 김 모씨는 “서귀포 시내 사람들은 자주 이용하던 마트인데, 몇 달 전부터 매대가 비어있는 곳도 있어 예전보다는 이용을 잘 안하게 되는 것 같다”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노동자들도 임금 미지급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정 민주노총 서비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이 두세 달 치 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퇴사를 많이 했다. 근무하는 직원이 한때 200명이 넘었는데 현재는 120여 명으로 줄었다”며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폐점 매장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탓에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8일 찾은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홈플러스 서귀포점 판매 매대가 일부 비어있거나 다른 물품으로 채워져 진열돼있다.

박소정기자

수상레저사고 많은 여름철
제주해경, 특별 안전관리

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활동이 집중되는 성수기를 맞아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해양레저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해양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요 해양레저 활동구역 예방 순찰과 안전계도 강화,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더불어 해양레저 안전 현수막·홍보물 게시를 통한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스쿨존 63% ‘노란신호기’로 바뀌었다

신호기 160곳 중 102곳 교체
자치경찰 ‘하반기에도 추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기 가운데 63%가 ‘노란신호기’로 바뀌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9개소가 노란신호기로 교체됐다. 지역별로 보면 예코슬어린이집, 광검초, 더덕초, 도평초 등 제주도 지역 5개소와

예일어린이집, 중흥S클래스, 하원초, 창천초 등 서귀포시 지역 4개소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160개소 중 약 63%인 102개소가 노란신호기로 교체됐다.

노란신호기 교체 공사는 스쿨존 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왔다.

노란신호기는 기존 검은색 신호

기 철주와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한 시설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게 해 서행을 유도하고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하반기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한 개선 사업을 이어간다. 하반기에는 동화초, 삼양초, 화북초, 삼화초, 함덕초, 봉개초(2개소), 까리따스유치원, 아라초(2개소) 등 10개소에 대해 추가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올해 제주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피해 10건

피해액도 8070만원 달해

소방본부, 예방 홍보 활동

제주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와 관련해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 확인된 소방기관 사칭 피해는 모두 10건으로, 피해액은 8070만원에 달한다.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보면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위조 공문서를 보내거나,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한 뒤 비용을 편취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

구하지 않는다”며 “소방점검을 이유로 금전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받으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비롯해 주의사항을 담은 오프라인 홍보물과 온라인 카드뉴스를 활용한 집중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소방본부는 특히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점검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소방관 사칭 사례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세금 낼 돈 없어도 주식엔 투자?

제주시, 고액 체납 174명 적발… 57억 상당 주식 보유
시 “증권사 자료 받아 직접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

제주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주식 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5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방식에서 벗어나,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은 도내 최초의 직접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미납 지방세 체납액은 12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

납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등 은닉 자산 추적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금 낼 돈이 없으며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